

#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대국민 설명회



2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가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옛 도청 복원법시도민대책위)는 28일 옛 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복원계획 수립을 전담한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옛 도청 본관·별관·

회의실, 전남경찰청(전남도경찰국) 본관·민원실·상무관 등 6개 관내·외부와 연결 통로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도청 본관과 별관 본관과 회의실을 잇는 통로를 복원하고 본관 서무과(1층)와 부지사실(2·3층)을 본래 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본관 서무과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시민군 상황실로 쓰였다.

##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5·18정신·가치 계승” 문체부,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업안 마련

또 계엄군이 1980년 5월27일 무력으로 도청을 진압할 때 방충이 이뤄졌던 장소다. 부지사실은 시민수습 대책위원회가 활동했던 곳이다.

시민군 식사장소·무기고로 활용됐고 80년 5월27일 시민군 퇴로였던 '도청 민원·회의실'은 통로(민원실·도경찰국)와 외부 계단을 복원한다.

시민군 활동장소이자 최후항쟁을 결의했던 '도청 별관'은 건축·소방법을 고려해 3~4층만 복원하기로 했다. 1~2층은 전당 입구로 사용된다.

본관 서무과 복원 과정에 사라지는 엘리베이터는 별관에 설치된다.

희생자 수습과 신원 확인 장소였던 '도경찰국'은 보강재를 유지한 채 주출입구와 내부 공간(중요계단실 포함 1~3층)이 전면 복원된다. 이곳에 있던 전시시설은 모두 철거된다.

상무관도 원형 모습 그대로 바꾼다. 도청 본관과 도경찰국 사이에 있는 방문자센터는 철거된다.

5·18 당시 도경찰국 등지에 남

겨진 흉탄 추정 자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 기관의 감정을 거쳐 복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17일부터 복원 계획을 수립해 온 연구원은 5·18의 정신·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도청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복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가 용역을 통해 설계·시공안과 전시 콘텐츠 구축 사업안을 마련한다.

이르면 2020년 10월부터 복원 공사가 진행돼 2022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공사비는 약 170억 원이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18의 숭고한 역사와 가치를 교육·계승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동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참여단체 모집

광주 동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성원 1/3 이상이 동구민이고, 동구에 활동공간을 두고 있는 7인 이상의 문화예술동아리다.

지원분야는 문학·음악·무용·연극·미술·공예·영화·사진·전통 등 9개 분야이며 단체별로 강사로, 교재비, 공연료 등을 1백~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타 공공기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단순 친목회 등 사적모임 활동은 제외된다.

동구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지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중으로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서구, 운천호수 벚꽃 향연 펼쳐보인다

광주 서구가 운천호수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수변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음악분수를 본격 가동한다.

운천호수 공원은 1일 1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광주의 대표 벚꽃 명소로 2010년부터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상시키는 음악분수 쇼를 선보여 왔다. 최고 40m의 시원한 물줄기와 조명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장관을 만들어내는 음악분수 쇼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27일부터 2주간 매일 4회 (낮 12시30분, 3시30분, 저녁 7시30분, 8시30분) 30분씩 운영 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차례 노후된 분수 시설을 정비했으며, 특히 올해는 방탄소년단의 '러브마이셀프', 김연자의 '이모르파티' 등 연출곡을 새롭게 추가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남구 “우체국 가상계좌로 지방세 납부하세요”

광주 남구는 주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 방법 중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율은 4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그동안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시흥은행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농협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등 4곳이었으며,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기도 했다.

우체국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오는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 북구, 여성 응원하는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생생통통(生生通通) 여성친화 행복도시' 광주 북구가 여성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북구 여성행복원센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북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경력단절, 출산·육아, 성차별 등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구 여성행복원센터 미래비전 선포식'과 '성평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북구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28일 밝혔다.

'북구 여성행복원센터'는 일, 육아, 가사의 3중고에 지쳐있는 여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신과 육체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광산문화예회관 공연·교육 더욱 풍성해진다

광주 광산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5개 분야 7개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돼 사업비 총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광주지역 최고액인 1억9,000만원을 한국문화예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사업은 각각 1억5,000만원과 4,0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문화예회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 공모에도 6년 연속 선정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에 2,700만원, '문화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1,100만원을 지원받는다.

## 광주 북구 누문구역 재개발 사업 난항

### 조합장과 주민 갈등 첨예...일부조합원 조합장 불신임 확산

광주시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모 조합장이 광주시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반발하는 조합원들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뉴스테이 재개발사업과 관련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와 조합장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

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의구심이 해소되면 27일 종전감정평가를 통지하라는 권고를 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간단히 다음날인 15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종전 감정평가 통지(발송)와 조합원분향신청 게시를 강행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광주시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정을 강행하는 알 수가 없

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누문희망제작소 김광호 공동대표는 "구 도정법에 근거해 조합측이 현재 진행하는 분양신청은 2018년2월9일 바뀐 도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김모 조합장은 "사업구역의 감정평가업체는 관할 북구청에서 2군데를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시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잡카페' 1호점 오픈

일지리를 찾는 청년들이 정보도 얻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광주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28일 서구 상무중입로 서광주농협 운전점 2층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잡카페 1호점'을 오픈했다. 이곳은 기존 일자리(취업)센터와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일지리에 관한 정보획득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청년들의 취향에 맞게 실제 카페처럼 내부를 꾸며놨고 상담실, 회의실, 모의면접실, 미니카페, 도서공간 등을 갖추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직 청년들은 예약을 통해 잡카



폐 내 회의실, 스터디룸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니카페, 도서공간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힙터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은홍 기자

## 신민호도의원 전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제정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유아와 학생의 이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전남에도 제정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발맞춰 전남교육청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호흡기와 폐 질환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될 경우 조치사항, 전라남도 및 시·군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신봉우 기자

김승호 전남부부처본부장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3083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한수현(381030-1655618)  
 최후주소: 광주 북구 서방로171번길 13(두암동)

위 망 한수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3월 29일

공고인: 한명진, 한명신, 한영미, 한승선.  
 주소: 광주 북구 서방로171번길 13(두암동)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3월 26일  
 공고기간: 2019. 3. 29- 2019. 5. 29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3041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김창운(681004-1644415)  
 최후주소: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4동 2102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세티아파트)

위 망 김창운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3월 29일

공고인: 임영순, 김하은, 김한술.  
 주소: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0, 204동 2102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세티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3월 26일  
 공고기간: 2019. 3. 29- 2019. 5. 29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Fax: 062-222-5548  
 홈페이지: www.ihonam.com